

4-30-2008

## 편집위원장임기를 마치며

상만 한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amj.kma.re.kr/journal>



Part of the [Marketing Commons](#)

### Recommended Citation

한, 상만 (2008) "편집위원장임기를 마치며," *Asia Marketing Journal*: Vol. 10 : Iss. 1 , Article 2.  
Available at: <https://doi.org/10.53728/2765-6500.1207>

This Article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Asia Marketing Journal.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Asia Marketing Journal by an authorized editor of Asia Marketing Journal.

## 편집위원장임기를 마치며,

한가로운 4월의 꽃내음이 물씬 풍겨나는 수요일 오후에 오랜만의 여유를 느끼며 퇴임사를 쓰려고 앉으니, 지난 2년 동안의 편집위원장으로서의 시간이 한 순간의 짧은 시간이었던 것처럼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2년 전 부족한 저에게 “마케팅저널”의 중임을 맡겨주신 김성환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처음 편집위원장이 되었을 때, 세세하게 한 가지 한 가지를 알려주시던 전인수 전편집위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전인수교수님과 강남 신사동의 커피숍에서 만나고, 또 전 교수님의 연구실을 찾아가서 설명을 들으면서,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은 “마케팅저널”의 미션과 비전을 어떻게 해야 하나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어떻게 2등 저널의 이미지를 벗어날까,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마케팅저널”이 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할까하는 고민으로 주위 분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혼자서 생각도 해보았던 그때가 많이 떠오릅니다. 그때 제게 떠올랐던 생각은 ACR proceeding이었습니다. 짧고 간결하지만 새로운 연구들을 많이 소개하는 ACR proceeding과 같은 형식의 journal을 만들면, 한국의 교수님들이 영어로 논문을 쓰는 것도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제게는 좋은 여건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우선 전임 편집 위원장이셨던 전인수교수님께서 학진 등재지 준비를 많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자료를 모아서 정리하는 일들을 하면 되는 상황이었고, 많은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학진 등재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마케팅저널”이 학진 등재지로 선정이 되면 보다 많은 논문들이 투고가 될 것이고, 특히 논문게재에 대한 교수님들의 수요는 점점 커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집위원회에서 많은 논란 끝에 편집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새 편집규정에 의하면 투고된 논문이 게재확정이 되면 1000자 이상의 text를 포함한 extended abstract를 제출하도록 의무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마케팅저널”의 투고수준을 고려해 볼 때, 투고수를 더 줄어든게 만들지 않을까하고 우려하신 편집위원님들의 걱정도 바로 어제의 일처럼 눈에 선합니다. 그 후에 영문저널을 만드는 과정에서 흔쾌히 많은 도움을 주셨던 편집위원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년 전 2006년 7월호의 취임사에서 생각했던 “마케팅저널”의 미션과 비전은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케팅저널”이 영문저널로 거듭나는 것을 “마케팅저널”의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마케팅저널은 국문저널과 영문저널의 중간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바라기는 앞으로 영문저널로의 전환이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제시했던 비전은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그리고 한국의 마케팅연구를 global 시장에서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올해 2008년 1월호는 “Hightech Marketing in Asia”라는 주제로 특별 호를 만들었습니다. 특별

호에 투고해주시고 작년 2007년 가을 학회에서 발표도 해주신 많은 훌륭한 교수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훌륭한 논문들이 20편정도가 투고되었고, 그 중에서 9편이 이번 1월호에 실렸습니다.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앞서는 Information Technology, Hightech Industry에 대한 이번 특별 호는 올해 6월 말에 extended abstract들을 중심으로 다시 영문저널로 만들어져서 400분의 아시아, 미국, 유럽의 key research figure들에게 보내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 이어진다면 몇 년 후에는 "마케팅 저널"을 reference하는 SSCI journal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마케팅저널"이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봉사로 "마케팅저널"을 이끌어 오신 전임 편집위원장님들, 김재일교수님, 예종석교수님, 최낙환교수님, 전인수교수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김재일교수님과 전인수교수님께서는 따로 시간을 내주셔서 "마케팅저널"의 방향과 이슈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두 분 교수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또한 "마케팅저널"을 함께 이끌어 간 편집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에서 올라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던 박상준교수님, 이희욱교수님, 이의훈교수님. 또 바쁜 가운데서도 참석하셔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던 류강석교수님, 김상훈교수님, 전선규교수님, 김영찬교수님 감사합니다.

끝으로 부족한 저의 손발이 되어서 "마케팅저널"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봉사를 해 준 옥경영박사님과 김병진석사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전임 편집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쇼트트랙 결승에서 변천사가 뒤에서 치고나와 진선유의 엉덩이를 힘껏 밀어 주던 그 모습 그대로, 저도 저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서 "한국마케팅저널"의 6대 편집위원장으로 취임하신 김영찬 교수님의 뒤에서 힘껏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마케팅저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008년 4월

봄향기나는 교정에서  
한 상 만 올림